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<br>김 성 조(02-2100-2860) | 담 당 자 | 박 성 빈 사무관(02-2100-2864) |
|       |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장<br>김 학 문(02-3145-8410) |       | 유 상 범 팀장(02-3145-8409)  |
|       | 한국신용정보원 상무<br>김 응 수(02-3705-5806)   |       | 이 철 흠 부장(02-3705-5938)  |

## 제 목 :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,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### - '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발표

- ◆ **기술금융**은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술력은 물론, 지식재산권(IP),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-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.9조원('21.9월말)으로,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.
- ◆ '21년 상반기 은행권 **기술금융 실적평가(TECH평가)** 결과, 기업하나은행(대형), 경남·부산은행(소형)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- ◆ 앞으로 **TECH평가 지표**를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하도록 증가율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.
  - **기술평가모형을 표준화**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, 기술평가 **품질모니터링 체계** 구축을 통한 질적 개선과 함께 **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**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

## 1 기술금융 추진 개요 및 지원효과

- 기술금융은 '14.1월 도입 이래 쉰은행권 노력으로 기술력·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  - '21.9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.9조원으로,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\*를 보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.

\* '18년말 163.8조원 → '19년말 205.5조원 → '20년말 266.9조원 → '21.9월 310.9조원

□ 이 외에도 금리 및 한도, 순수 신용대출, 유망기술분야 및 창업 기업 지원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❶ (금리·한도) 일반 중기대출 평균 대비 금리 인하( $\Delta 0.14\text{p}$ ) 및 한도 확대(평균 2.2억원)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('21.8월말 기준).

❷ (순수 신용대출)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(14.5%)은 일반 중기대출(9.2%)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('21.8월말 기준).

❸ (유망기술/창업기업) 반도체·에너지 등 유망기술분야 기업\*은 물론, 상대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약한 창업기업 등\*\*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\* 유망기술분야 기업 비중(% , 잔액기준) : ('20.上) 32.9  $\rightarrow$  ('21.上) 37.6

\*\* 창업기업(업력 7년 이내) 비중(% , 잔액기준) : ('20.上) 54.3  $\rightarrow$  ('21.上) 57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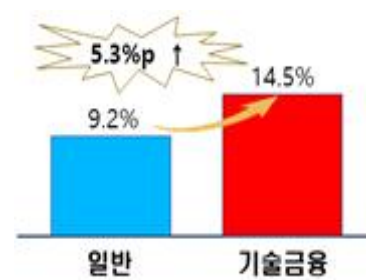
< 금액(금액기준 가중평균) >



< 한도 >



< 순수신용대출 비중 >



□ 이에 더해, 기술금융 기업(非창업기업)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○ 미래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금융 기업\*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 받아 안정적 성장세\*\*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\* '20년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있는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상의 非창업기업

\*\* 성장성(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) : (기술금융 기업) 15.2% > (일반 中企) 4.2%

수익성(영업이익률) : (기술금융 기업) 6.8% > (일반 中企) 6.2%

○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 연체율 등을 모니터링\*하여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\* 연체율('21.10월말, 5대은행·기은) : (기술금융 기업) 0.20% < (일반 中企) 0.27%

- 특히 기술금융은 지식재산권(IP), 동산금융, 창업기업 등에 대한 혁신금융 과제를 적극 지원하며 은행권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.
- IP·동산담보대출 규모를 TECH평가에 반영하여 기업의 유·무형 자산을 활용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,
  -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춰\*,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왔습니다.
- \*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실적은 별도로 배점을 부여하고(12점),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창업기업은 낮은 기술평가등급에 대한 대출도 실적으로 인정(T6→T7)

## 2 2021년 상반기 은행 TECH평가 결과

### < TECH평가 개요 >

- (내용) 반기별로 은행권의 ①기술금융 공급실적 및 ②지원역량 등을 평가
- (평가지표) 정량지표(공급규모 등, 88점) 및 정성지표(인력·조직 등 지원역량, 12점)
- (평가체계) 정량평가(금감원), 정성평가(신정원) → 금융연 검증 → TECH평가위원회 심사
- (결과활용) 평가결과에 따라 신·기보 출연료를 차등적용

- 기술·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\*하고 있습니다.

\* (정량지표) 기술금융 ①공급규모, ②기술기업지원, ③기술기반투자확대 등  
(정성지표) 기술금융 인력·조직·리스크관리·시스템 등

- '21년도 상반기 실적 평가 결과, 대형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, 소형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.

### < 연도별 TECH평가 결과 >

| 구 분 |    | '16.상 | '16.하 | '17.상 | '17.하 | '18.상 | '18.하 | '19.상 | '19.하 | '20.상 | '20.하 | '21.상 |
|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대형  | 1위 | 기업    | 기업    | 하나    | 기업    | 하나    | 신한    | 하나    | 하나    | 신한    | 기업    | 기업    |
|     | 2위 | 신한    | 신한    | 신한    | 신한    | 기업    | 국민    | 기업    | 국민    | 하나    | 하나    | 하나    |
| 소형  | 1위 | 부산    | 경남    | 대구    | 경남    | 부산    | 대구    | 대구    | 대구    | 경남    | 경남    | 경남    |
|     | 2위 | 경남    | 부산    | 경남    | 대구    | 대구    | 경남    | 수협    | 광주    | 부산    | 부산    | 부산    |

- 기업은행은 IP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\*하였으며,

\* 기술신용대출 평가액(조원, 누적): ('20.上) 46.2 → ('20.下) 52.4 → ('21.上) 57.9  
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('21.上): (기업은행) 2,110억원 > (대형은행 평균) 794억원

- 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 및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 결과, 소형은행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.

\*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(억원): ('20.上) 54.2 → ('20.下) 56.3 → ('21.上) 167.3  
기술기반 신규투자액('21.上): (경남은행) 81.9억원 > (소형은행 평균) 45.6억원

### 3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심사 결과

-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기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,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, 평가서 수준,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\*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\* 심사 결과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\*이 증가

※ (Lv1) 예비실시 → (Lv2)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% 이내 → (Lv3) 50% 이내 → (Lv4) 제한 없음

-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\* 모두 자체 기술평가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.

\* (Lv4)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농협, 부산, 대구, 산업 / (Lv3) 경남

- 은행들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, '21년 상반기 자체 총 평가건수는 15,953건으로 직전반기 대비 약 35% 증가하였습니다.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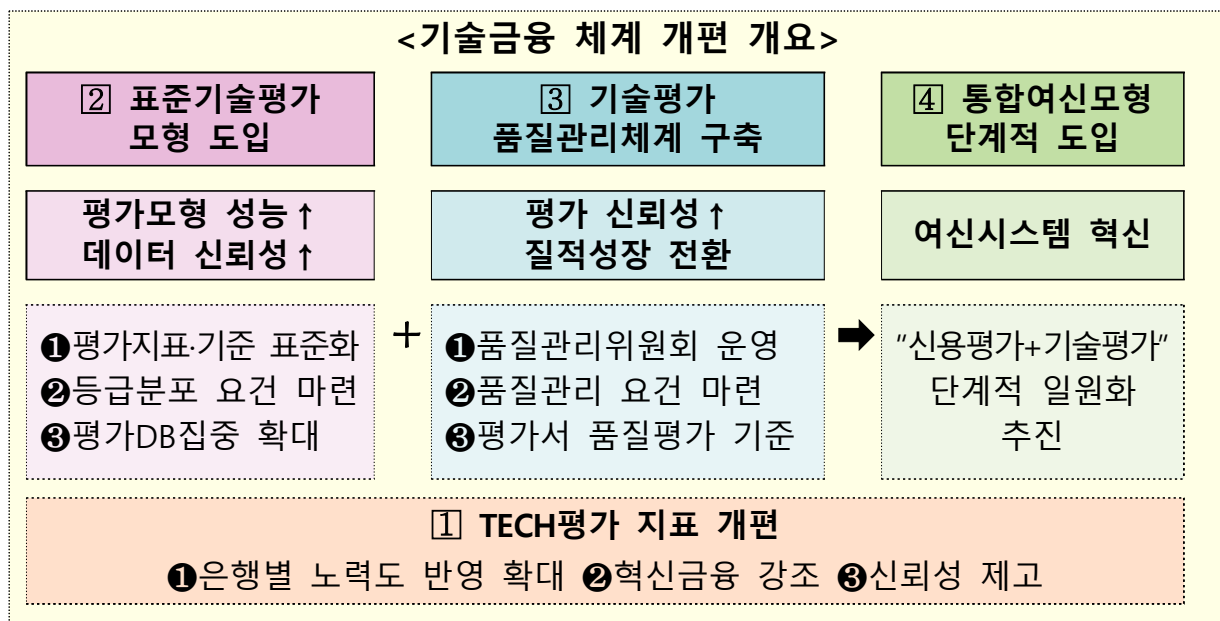
\* 은행 총 자체평가건수: ('20.下) 11,840건 → ('20.上) 15,953건(+35%)

- 또한 자체 기술평가로 은행권 이공계 진출 확대 효과가 있어, 기술력에 기반한 여신·투자시스템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.

\* 은행들은 자연계열박사(43명), 변리사(50명), 기술사(11명) 등을 통해 기술평가 실시

## 4 기술금융 체계 개편 방안

1. **TECH평가 지표**를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노력도를 반영하여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중심으로 평가하고, IP 및 뉴딜 관련 지표를 확대하여 혁신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.
2. 은행-TCB社 간 기술평가 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하는 **표준기술평가 모형을 도입**하여 기술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3. **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**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·관리하고,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.
4. 기술평가-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해 기술력이 있으면 ‘신용등급’까지 개선될 수 있는 **통합여신모형**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

① 타은행 대비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하도록 **TECH평가 지표**를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하고, IP금융 등 혁신금융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.

- 기술금융 잔액 등의 누적 개념보다 ‘증가율’ 지표(직전 2반기 대비)를 확대하는 등, 은행별 기술금융 ‘노력도’를 강조할 계획입니다.
- IP·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 지표를 확대하였고, 뉴딜 관련 산업코드를 유망기술분야 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.

⇒ '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.

② 평가기관(TCB, 은행)별로 기술평가 지표·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, **표준기술평가모형**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- 부도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**중요지표 28개**를 **표준항목**으로 정하고, **평가기준을 표준화**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.
- 기관별 평가근거 자료는 **신정원에** 집중하여 향후 모형개선에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.

⇒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'22.1월부터 전면 적용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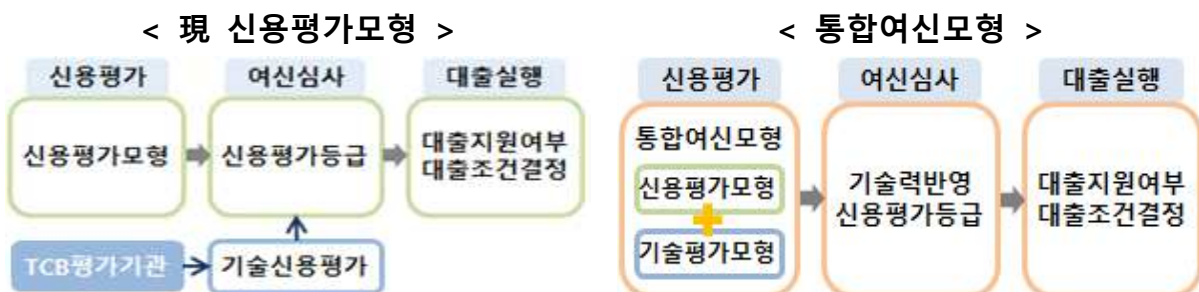
③ 기술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이 유지되는 만큼, 자체평가 은행 및 TCB社 기술평가에 대해 **품질관리체계**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

-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품질관리위**(신정원 운영)에서 기술평가 품질을 반기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,
- 평가품질 심사 결과(우수·보통·미흡)에 따라 결과 공시 등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\*할 예정입니다.

\* 우수/미흡 사실 공시, TECH평가 정성지표 반영(4/100점), 미흡시 개선계획 제출 등

⇒ '22.1월부터 은행권, TCB社의 기술평가서 품질관리를 실시합니다.

④ 중장기적으로,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어 '기술력'이 있으면 '신용등급'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**통합여신모형**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


- 기술요소 반영 범위에 따라 통합여신모형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


<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 방안 >

| 단계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
|---------------|---|
| 1단계<br>(도입)   | 비재무모형 내에 기술요소의 일부를 반영<br>* <sup>1)</sup> 참조모형(금감원 승인 要), <sup>2)</sup> 대안모형, <sup>3)</sup> over-ride에 반영하는 경우도 인정 |
| 2단계<br>(부분통합) | 비재무모형 내에 표준기술평가 필수항목의 <u>20% 이상</u> 을 직접 반영   |
| 3단계<br>(완전통합) | 필수항목의 <u>50% 이상</u> 을 직접 반영 → 신용평가모형과 기술평가모형 결합   |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<br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<br>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br>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| 금융위원회 대 변 인<br>prfsc@korea.kr | <br>불법관리청 콜센터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